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초등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조건상*, 최영준**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체육학부**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Mattering and School Life Adjustments of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Gun-Sang Cho*, Young-Jun Choi**

Dept. of Athletic Training, Daelim University*

Dept. of Sport & Leisure Stud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 약 이 연구는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체육활동을 실시하는 4,5,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2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검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분석은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또래존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또래존재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 및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인과적 관계가 있다.

주제어 : 방과 후 체육활동, 초등학생, 자아탄력성, 또래존재감, 학교생활적응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mattering and school life adjustments of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The number of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429 who were participating in the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in Gyeonggi-do.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of the questionnaire and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20.0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conducted by using AMOS 20.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go-resilience of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affects their mattering. Second, mattering of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affects their school life adjustments. Third, ego-resilience of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affects their school life adjustments. Lastly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mattering and school life adjustments of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Key Words :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Schoolchild, Ego-Resilience, Mattering, School Life Adjustments

Received 30 April 2016, Revised 26 May 2016
Accepted 20 June 2016, Published 28 June 2016
Corresponding Author: Young-Jun Choi(Dept. of Sport & Leisure Stud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cyj@bufs.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초등학생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다양한 경험 속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적 측면 이외에 일상생활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이나 부정적인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부정적인 경험들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의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초등학교 아동들로 하여금 성인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며[1],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2].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학습활동에 대한 흥미결여와 심하게는 학업 중단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미 2013년 교육기본통계조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나타난 학업중단 현상이 2010년 11,634명에서 2012년 19,163명으로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는 학교부적응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015년 자료에서 전년대비 0.1%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학교생활의 부적응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3,4].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연결시기임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중등과정에 올라가서도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5].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6,7].

학생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개인차가 인정되기 어려운 교육환경에서는 규범과 규율에 대한 억압, 친구들이나 교사와의 관계 등의 어려움은 좌절과 실패에 따른 상황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학생들은 그것을 빨리 극복하거나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좌절과 실패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이처럼 좌절이나 실패의 상황을 유연하게 반응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회복속도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한다.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측면에 따른 성공적인 적응과 관련되어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개념으로[8], 대인관계성의 요구나, 사회적 지지와 같이 또래집단 적응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인지 및 행동전략을 조절하기도 하지만[9,10,11], 자아존중감이나 자기 개념 등 자아의 동기 조절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12,13].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적응이라는 기능적인 측면과 자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측면과 다양하게 연계됨으로 최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교육적 측면이나 규범적 측면, 그리고 대인과의 관계적 측면에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14,15,16,17].

이와 더불어 최근 연구들에서 자아탄력성이 학교체육을 포함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자아탄력성의 강화요인으로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8,19]. 이는 학교생활에 있어 문제시되고 있는 부적응사태에 대한 해결의 일환으로 학교체육활동의 정책적 관심에 의미를 제공해주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20,21]. 또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는 학교체육활동과 학교생활적응에서 자아탄력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기적절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됨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어떠한 측면에 의해 학교생활이 적응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11월 EBS에서는 초등성장보고서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적응하는 일상을 방영한 적이 있다. 이 내용 중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존재감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이들이 또래집단에서의 존재감 인식에 의해 학교생활의 행복감과 불행정도가 달라짐을 언급하고 있었다. 즉, 이 내용은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또래존재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래존재감이란 타인들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심리 내적인 인식으로 자신이 타인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는 측면과 타인과의 관계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

기개념의 한 요소로 제안된 개념이다[22,23,24]. 자신의 중요성 인식을 자아와 타자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조직의 적응측면에서 정신건강, 스트레스, 우울, 만족 등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25,26].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대인존재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는 또래존재감이 자아탄력성과 같이 또래집단 적응의 인지 행동전략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학교생활적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에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조절하는데 있어 스포츠 활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자아탄력성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에 의해 자아와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어떻게 인식되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규명하여 초등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은 관계가 있는가? 둘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또래존재감은 학교생활적응과 관계가 있는가? 셋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과 관계가 있는가? 넷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 및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인과적 관계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가했던 4, 5, 6학년 초등학생을 모집단을 선정하여 경기도 북부 소재 G시(4개교)와 K시(3개교) 지역의 초등학교 7개

교를 중심으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44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 학교당 60~6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설문응답에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자료 11명의 자료를 제외한 429명의 자료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얻어진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Sec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222	51.7
	Female	207	48.3
Grade	Fourth grade	140	32.6
	Fifth grade	148	34.5
	sixth grade	141	32.9
Participation event	jump rope	85	19.8
	Soccer	163	38.0
	dodge ball	102	23.8
	badminton	79	18.4

2.2 조사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배경변인 항목 3문항, 자아탄력성 7문항, 또래존재감 18문항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20문항으로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설문지의 구성내용으로 우선 배경변인은 성별, 학년, 참여종목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 외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중 역치 문항으로 구성된 내용은 구성된 척도의 내용에 맞게 재코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음 설문내용의 선정으로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를 유성경, 홍세희와 최보윤의 연구에서 번안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 사용하였다[10,28]. 총 7문항(예,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 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으로 한 개의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래존재감은 Elliott, Kao & Grant가 개발한 대인존재감 척도를 최한나와 임윤선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대인존재감 척도를 이 연구 대상인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22,29]. 이에 따라 변수의 명칭이 대인존재감으로 기술하여야 하나 대상이

초등학생임을 감안하여 또래존재감으로 재 명명화 하였다. 이에 따른 또래존재감은 초등학생 또래간의 존재감에 대해서 나타내는 내용으로 알아봄(7문항), 상호의지(7문항), 관심(4문항)의 3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은 문선모, 이상필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여 사용하였다[30,31][32]. 제외이유는 학교행사의 경우 학교 간 차이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른 최종구성변인은 학습활동(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사관계(5문항)로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2.3 설문지의 타당성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된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실시하였다. 우선 첫째로, 스포츠심리교육 전공 교수와 박사 2인의 자문을 통해 설문내용에 대한 내용타당도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하였고, 지적된 내용은 수정·보완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음 둘째로, 구성된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적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요인회전방법은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각회전(Direct Oblimin) 방법을 이용하였다. 회전에 따른 분석으로 요인추출의 기준은 공통비는 .4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초기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 그리고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5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아탄력성은 단일변수임으로 요인분석을 제외하였으나, 신뢰도 검증결과는 Cronbach's 값이 .876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존재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18개 문항 중 공통비가 .40미만인 문항 3개 문항(상호의지 11번, 13번, 14번)과 요인적재값이 낮게 나타난 1개 문항(알아봄 2번)을 제외하고, 14개 문항에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알아봄의 요인부하량은 .656~.767로 나타났으며, 관심은 .670~.835 그리고 상호의지는 .710~.787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량은 59.60%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값은

.748~.854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Mattering

Question	awareness	importance	reliance	h ²
item 7*	.767	.197	.105	.638
item 4*	.760	.151	.039	.603
item 3*	.759	.132	.125	.608
item 5	.756	.165	.045	.600
item 6	.748	.049	.076	.568
item 1*	.656	.230	.068	.488
item 16	.109	.835	.117	.724
item 15*	.229	.767	.102	.651
item 17*	.217	.754	.039	.616
item 18	.183	.670	.281	.561
item 9	.054	.166	.787	.650
item 8	.030	.154	.739	.570
item 10*	.094	.031	.727	.539
item 12	.129	.087	.710	.528
eigenvalue	3.477	2.523	2.344	
variance(%)	24.835	18.023	16.740	-
accumulation(%)	24.835	42.858	59.598	
Cronbach'α	.854	.802	.748	

KMO=.852 χ²=2158.216 df=91 Sig=.000 * 역치문항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chool life adjustments

Question	teacher relation	learning activity	school rule	associates	h ²
item 18	.824	.192	.177	.155	.780
item 20	.811	.062	.089	.222	.735
item 19	.759	.151	.133	.411	.795
item 17	.752	.246	.297	.165	.745
item 16	.707	.248	.276	.122	.639
item 3	.108	.844	.189	.182	.791
item 4	.224	.777	.175	.204	.728
item 1	.171	.713	.167	.197	.607
item 2	.121	.697	.194	.146	.562
item 5*	.123	.663	.116	-.086	.474
item 7	.164	.204	.843	.023	.756
item 9	.301	.273	.722	.117	.751
item 10	.203	.325	.674	.285	.717
item 6	.366	.179	.672	.231	.681
item 11	.245	.133	.125	.788	.748
item 12	.280	.138	.284	.737	.717
item 13	.317	.221	.201	.693	.686
eigenvalue	3.501	3.248	2.786	2.377	
variance(%)	20.594	19.106	16.387	13.982	-
accumulation(%)	20.594	39.700	56.088	70.070	
Cronbach'α	.898	.845	.862	.809	

KMO=.912 χ²=4333.763 df=136 Sig=.000 * 역치문항

다음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20개 문항 중 공통비가 .40미만인 문항 3개 문항(학교규칙 8번, 교우관계 14번, 15번)을 제외하고, 17개 문항에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교사관계

의 요인부하량은 .707~.824로 나타났으며, 학습활동은 .663~.844, 학교규칙은 .672~.843 그리고 교우관계는 .693~.788로 나타났고, 총 설명량은 70.01%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값은 .809~.898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 확인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된 측정항목에 대해서 변인별로 측정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평가기준은 χ^2 값과 적합도 지수인 GFI($\geq .90$), NFI($\geq .90$), CFI($\geq .90$), TLI($\geq .90$), RMSEA($\leq .08$)를 적용하였다. 다음의 <Table 4>는 각 구성개념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평가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y study units

	χ^2	GFI	NFI	CFI	TLI	RMSEA
mattering	203.186	.937	.907	.938	.924	.064
school life adjustments	442.577	.902	.899	.923	.907	.081

2.5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해당학교에 방문하여, 학교장이나 방과 후 체육 활동 담당교사에게 설문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설문대상에게 설문 목적과 기입방법을 설명하였다. 이 후 설문대상인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여 회수하였다.

이를 통해 회수된 자료 중 응답결과를 살펴보고, 이중 기입이나 무기입 또는 무성의하게 기입한 등 응답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에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응답자료는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키고, IBM SPSS 20.0과 IBM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미만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구성개념 간의 상관분석 및 타당성 분석

<Table 5>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간의 상관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한 결과이다. 우선 이 연구에서 설정한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분석결과는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의 하위변인인 관심변인간의 상관계수 $r=.054$ $p>.05$ 와 또래존재감의 하위변인인 관심변인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학교규칙변인의 상관계수 $r=.085$ $p>.05$ 에서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인간의 상관관계(r)는 .190에서 .603이었으며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집중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을 계산한 결과 모든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CR	AVE
1.ego-resilience	1								.905	.502
2.awaewness	.553**	1							.902	.608
3.interest	.422**	.436**	1						.870	.627
4.mutual	.054	.224**	.328**	1					.822	.540
5.learning activity	.370**	.199**	.365**	.190**	1				.850	.540
6.school rule	.479**	.355**	.313**	.085	.546**	1			.889	.620
7.associates	.490**	.324**	.303**	.190**	.437**	.549**	1		.854	.595
8.teacher relation	.460**	.355**	.387**	.127**	.467**	.572**	.603**	1	.820	.600

** $p<.01$

값이 일반적 기준(CR=.7이상, AVE=.5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은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을 판명되었다[33]. 그리고 판별타당도는 연구단위의 각각에 대한 AVE값이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제안한 내용에 맞게 AVE값의 범위(.502 ~.603)가 상관계수 제곱값(.036~.36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 또한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34].

3.2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

구성개념간 타당성 분석을 통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간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우선 구조모형은 3개 척도(자아탄력성, 또래존재감, 학교생활적응)의 8개 측정변수(자아탄력성, 알아봄, 상호의지, 관심, 학습활동, 학습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른 이론 모형의 분석결과 $\chi^2=104.176(df=18, p=.000)$, GFI=.945, NFI=.910, CFI=.924, TLI=.902, RMR=.023으로 나타났다. 이 중 χ^2 의 *p*-value는 표본의 크기와 측정변수의 수에 민감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TLI의 지표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적합도 기준인 GFI, NFI, CFI, TLI는 .90 이상 그리고 RMR은 .05이하의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이 연구모형은 전반적으로 실증자료로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또래존재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경로계수=.694, $t=12.45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또래존재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또래

존재감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경로계수=.407, $t=4.11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또래존재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경로계수=.338, $t=4.17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인과적 관계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에서와 같이 각각의 잠재변수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변수들 중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경로계수=.338)뿐만 아니라 간접효과(경로계수=.283)까지 작용하고 있어 총 효과(경로계수=.620)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또래존재감에 의한 간접효과(매개효과)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두 변인 사이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여 의해 총효과에 영향을 미침으로 부분매개모형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이 연구는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또래존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의 관계는 아직 보고되지 않아 심도 깊은 논의가 어렵지만, 개인 내적 특성 중

<Table 6> Hypothesis testing & The goodness of fit of SEM

	Estimate	S.E.	C.R.(t)	P	effect		
					total effect	direct	indirect
ego-resilience → mattering	.694	.059	12.450	.001	.694	.694	-
mattering → school life adjustments	.407	.113	4.111	.001	.407	.407	-
ego-resilience → school life adjustments	.338	.097	4.176	.001	.620	.338	.283

The goodness of fit of SEM: $\chi^2=104.176$ $df=18, p=.001$ GFI=.945 NFI=.910 CFI=.924 TLI=.902 RMR=.023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인식 그리고 평가를 반영하는 인지적 관념인 자기개념은 개인 자신과 외적 환경, 즉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되며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경험하는 정서와 행동, 상황에 대한 대처 그리고 적응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여 이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겪게 될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래관계에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의미 즉 또래존재감을 높게 부여하게 된다. 즉,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치 등에 평가를 의미하는 자기 개념의 기능적 측면인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타인들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인식을 높여주어 또래존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또래존재감은 자아탄력성 확보가 되었을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자아탄력성과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기질 또는 성격 요인으로 낙천성, 유능성, 대인관계 능력 등이며[11],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타고난 성격의 한 유형이다[10]. 이 연구결과와 같이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초등학생의 또래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매우 중요한 성격 자원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또래존재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인존재감이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게 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35,36,37]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44], 개인이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을 경험하게 되어 적응에 문제를 보이게 된다고 보고한 Ellitt, Kao와 Grant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22]. 즉 또래관계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또래존재감이 높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방과 후 체육활동 중 농구 게임을 한다고 가정할 때 또래 관계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지 않아 패스를 받지 못하고 슛을 하지 못하는 등 원활한 상호작용을 즉,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자존감이 낮

아지고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되어 학교생활적응에 문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또래 관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껴서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인다는 결과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으며[27], 또래존재감이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또래존재감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이 상존하겠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Dixon Rayle은 대인존재감이 라는 심리내적 특성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담관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치료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기 때문이다[38]. 즉 또래존재감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인 교사는 내담자인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을 통해 학생생활 부적응 학생이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또래존재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또래존재감은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자신과 자기개념에 대한 내적 인식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이 무시되거나 주목받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조차도 하게 되는 심리내적 과정을 설명해주기 때문에[29]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초등학생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9,45,46]결과와 일치한다. Cicchetti와 Toth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어려운 환경에서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40], 초등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은 아동들에게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교생활의 부적응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인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주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조화를 이뤄 교사,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학습 활동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규칙을 잘 수용하여 학교행사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또래집단과 함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41].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또래관계는 OECD국가와 비교해 평균보다 낮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따돌림이나 학교규칙 위반 도는 수업방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등을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아탄력성은 유아기 때 형성되어 고정되어버린 특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습되고 발달될 가능성이 있는 가변적 특성이며,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도 주변의 개입과 지원 그리고 상호 노력을 통하여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42]. 특히 학령기 인구의 대부분은 초·중등학교를 졸업하며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초등학생들에게 학교는 가장 중요한 사회 환경이기 때문에[43]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최근 자아탄력성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또래존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또래존재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존재감 및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인과적 관계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대인존재감을 또래존재감으로 명명하여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검증하였지만, 체육학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던 변인이다. 방과 후 체육활동은 또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및 관계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존재감을 형성하고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과 연구의 확장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REFERENCES

- [1] B. Compas, B. R. Hinden, C. A. Gerhardt,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s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146, pp. 265 - 293, 1995.
- [2] Byeong Seok Min, "Relationship between the Taekwondo training and ego-resiliency, school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9, No. 5, pp. 61-72, 2010.
- [3] Ministry of Education. "2013 Education Basic Survey." Seoul: Ministry of Education, 2013.
- [4] Ministry of Education. "2013 Education Basic Survey".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15.
- [5] Min Jin Kim, "An Exploratory Study of Student's Experience of Transition from Kindergarten to First Grade."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Vol. 39, No. 1, pp. 181-210, 2008
- [6] Kyung Hoon Min, Jong Min Lee, "Influence of Sport Participa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Emotion, Self-regulation and Adaption of School." *The Korean Society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Vol. 20, No. 4, pp. 147-159, 2015.
- [7] G. W. Ladd., B. J. Kochenderger, C. C. Coleman,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7, No. 3, pp. 1103-1118, 1996
- [8]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9] A. S. Masten, K. M Best, N. Garmezy, "Resilience

-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2, No. 4, pp. 425-444, 1990.
- [10] J. H Block, A.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1996.
- [11] E. C.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5, pp. 1067- 1079. 1996
- [12] Seang Leol Yoo, Hyok Ju Eurm, Jung Gil Park, “A Case Study on Student-athletes’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Elementary School Based on the Theory of Self-resilience.”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22, No. 4, pp. 169-182, 2011.
- [13] Keun Mo Lee, Nam Mi Lee, “The analyses on effect of physical self-concept on ego-resiliency of middle-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sports-club.”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8, No. 1, pp. 67-79, 2009.
- [14] Ok Seon Kim, Yoon Ju Oh, Myung Goo Choi, “Family strengths, Ego-Resilience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9, No. 3, pp. 761-777, 2005.
- [15] Jong Un Kim, In Yeong Jang,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mental health between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adaptation to school of early adolescents in schools with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3, pp. 467-476, 2015.
- [16] Chun Ok Yu, Gab Joon Park, Seung Hwan Kim,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ports Activity Participation, Self-resilience,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to Life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Vol. 22, No. 2, pp. 109-126, 2015.
- [17] Yoon Joo Lee,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parents conflict on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5, No. 2, pp. 435-449, 2004.
- [18] Yon Sook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al Activities Programs Participation for After School and Ego-Resili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 19, No. 3, pp. 511-528, 2006.
- [19] Young Suk Lee, Kwang Hee Yang, Seung Jin Han, “The Effect of Leisure Sport Activity and The Type of School Depending on The Character Strengths and 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Vol. 21, No. 1, pp. 253-262, 2015.
- [20]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School violence against general measures.” Joint Interagency, 2012.
- [21] Ministry of Education,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plan activatio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13.
- [22] Elliott, G. C., Kao, S., & Grant, A. M.(2004). Mattering: Empirical validation of a social-psychological concept. *Self and Identity*, 3, 339-354.
- [23] J. E Myers, A. Bechtel, “Stress, wellness, and mattering among cadets at West Point: Factors affecting a fit and healthy force.” *Military Medicine*, Vol. 169, pp. 475-482, 2004.
- [24] A. D. Rayle, “Mattering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 84, No. 4, pp. 483-487, 2006.
- [25] A. Dixon Rayle, “Do school counselors matter? Mattering as a moderator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Vol. 9, pp. 206-215, 2006.
- [26] S. K. Dixon, S. E. Robinson Kurpius, “Depression and College Stress Among University Undergraduates: Do Mattering and Self-Esteem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49, No. 5, pp. 412-424, 2008.
- [27] Kyung Mee Lee, Han Ik Jo, Gi Soo Jeong, “The Mediating Effects of Matte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up Bullying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 studies, Vol. 22, No. 11, pp. 461-486, 2015.
- [28] Sung Kyung Yoo, Se Hee Hong, Bo Yoon Choi.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ttachment, and Existential Spirituality Between Family Risks and Adapt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8, No. 1, pp. 392-408, 2004.
- [29] Han Na Choi, Youn Sun Lim,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attering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3, pp. 1609-1715, 2013.
- [30] Sun Mo Moon, "Study on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and school adjustmen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tudent Teaching Search*. Vol. 4, 19-28. 1977.
- [31] Sang Phil Lee, "Differences in academic performance and behavior in accordance with the school adjustment level analysis."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1990.
- [32] Byung Soo Min, "Influence school adjustment and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1991.
- [33] Jong Pil Wo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and understanding of Woojongpil professor: AMOS 4.0-20.0." Seoul: Hannarae Academy, 2012.
- [34] C. Fornell,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pp. 39-50, 1981.
- [35] Ok Ran Kim, Wan Il Kim, "Relationship between Self-Complexity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mong Military Soldiers: Mediating Effects of Mattering and Perspective-Tak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7, No. 1, pp. 159-181, 2015.
- [36] S. K. Dixon, R. S. E. Kurpius, "Depression and college stress among university undergraduates: Do mattering and self-esteem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49, No. 5, pp. 412-424, 2008.
- [37] J. Hendrick, "The whole child. Columbus." Ohio: Charles Merrill. 2000.
- [38] A Dixon Rayle, "Mattering to Others: Implications for the Counseling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84, No. 4, pp. 483-487, 2006.
- [39] Soon-ok, Sung, Mi-dan Park, Young-hee, Kim,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Correlation between School Stress and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Research*, Vol. 20, No. 8, pp. 49-70, 2013.
- [40] D. Cicchetti, S. L. Toth, "Developmental processes in maltreated children. In D. Hansen(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46. Child maltreatment (pp.85- 160).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0.
- [41] S. Y. Park et al., "Parent-Child Relation 7th edition. Seoul: Gyomoon.", 2006.
- [42] Eun Suk Hong,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Vol. 41, No. 2, pp. 45-67, 2006.
- [43] Hyeon Min Cho, Young Jun Choi, "The Relationships among Peer Relationship, Socialization and Satisfaction of School Life of School Sports Club Activity Participation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4, No. 6, pp. 833-843, 2015.
- [44] Sang Jun Han, Sang Heang Lee, "A Study on Structural Relations among th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Convergence Leisure Sports Activ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515-523, 2015.
- [45] Ji won Lee, Kyung-hee Kang,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of students according to school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 69-74, 2014.
- [46] Kyoung-A Chung, Ji-Hyun Cho,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43-155, 2015.

조 건 상(Cho, Gun Sang)



- 1997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체육학사)
- 2003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08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융복합
- E-Mail : cgs3308@daelim.ac.kr

최 영 준(Choi, Young Jun)



- 2005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체육학사)
- 2007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11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코칭
- E-Mail : cyj@bufs.ac.kr